



6월 1일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상시 방역활동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모든 방역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6월 1일(월)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 ① (발생) 가금농장에서 4월 8일 충남 논산 지역에서 마지막 발생한 이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고, 야생조류는 3월 24일 강원 철원지역에서 마지막 검출된 이후 검출되지 않았음
- ② (이동제한) 5월 28일자로 전국 모든 방역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됨
- ③ (일제검사) 위험지역(4개도 : 충남, 전남·북, 경북) 가금농장 및 전국 전통시장 관련 일제 정밀검사(5.4~5.21) 결과에서 모두 이상 없음

1. 발생 현황 및 상황 진단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62건 및 야생조류에서 6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최근 10년간 연도별 가금농장 발생건수 : ('16/'17) 421건 → ('17/'18) 22건 → ('20/'21) 109건 → ('21/'22) 47건 → ('22/'23) 75건 → ('23/'24) 32건 → ('24/'25) 49건 → ('25/'26) 62건

이번 동절기는 유럽 등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였고, 우리나라도 예년 대비 약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첫 발생(9.12.)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3가지 유형(H5N1, H5N6, H5N9)의 혈청형이 검출되었으며 바이러스 감염력도 기존 대비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예년에 비해 어려운 방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관계 기관·단체 등이 모두 합심하여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농식품부는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여 6월 1일(월)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전국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주의→관심)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하지만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전국 가금농장, 전통시장, 야생조류 등을 대상으로 예찰검사와 방역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이번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등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하절기 방역관리 방안

농식품부는 하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 및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첫째, '26/'27시즌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은 이번 특별방역대책 기간 시작 전에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둘째, 가금농장 및 계열화사업자 등의 차단방역 역량 제고를 위해 권역별 및 축종별로 맞춤형 방역 교육을 9월까지 실시하고, 특히 지난 겨울철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한다.

셋째, 이번 방역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등)를 개정하고, 가금 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 등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도 개선해 나간다.

3. 당부사항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겨울철 어려운 방역여건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준 관계부처, 지방정부, 관계기관·단체 등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다만, 아직도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보완하는 등 다가오는 동절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황성철 (044-201-2551)
		담당자	서기관	이병용 (044-201-2555)